

보도자료



보도일시	확인 즉시 보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총 3쪽(별도 붙임 있음)
배포일시	2018. 4. 6.(금)	담당	사무국
책임자	박진태 총무이사 010-6204-6309	사무국장	홍세희(010-5521-0763)

‘칼을 쥘 노배우, 저 별을 향해 잠들다...’

- 본 학회의 회원 오순택 원로배우 향년 85세로 별세 -

(사)한국연기예술학회 회원이신 오순택 원로배우님이 지난 4일(현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그의 나이 향년 85세이다.

오순택 배우님은 미국 할리우드 진출 1세대 배우로서, 우리에게서 영화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1975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분이지만, 그 분께서는 작고하시기 전까지 평생을 ‘학구적인 연기자’로 살아오신 분이시다.

전남 목포 출신이신 고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59년 도미(渡美)하여 영화공부를 시작하였으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와 뉴욕 배우전문학교를 거쳐 UCLA 대학원에서 연기분야 최고학위인 연기 및 극작 석사학위(MFA) 받은 아카데미한 배우로서 정평을 날리었다. 그러면서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을 시작으로 TV, 영화 등의 각종 주·조연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할리우드에서는 당당히 예명 없이 ‘Soon-Tek Oh(오순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내는 배우이셨다. 그것이 2008년 샌디에이고 아시아 영화제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하시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으로 돌아오시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서울예대, 계명대 등에서 강의를 하며 후학들에게 많은 연기에 관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셨다. 특히 2013년에는 그분에게서 연기의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이 뭉쳐, 오마주(hommage)의 일환으로 『(오순택의 연기수업) 칼을 쥘 노배우』라는 저서(유아트, 2013)를 출판하여 ‘연기는 위대한 순간이자 창조이며, 삶의 진실을 향한 끊임 없는 발견의 여정’이라는 근원적인 철학을 몸소 실천해 오시는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어주셨다. 이제 지금의 이 책은 그의 연기세계와 연기관, 연기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유작이 되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이에 (사)한국연기예술학회는 작고하신 오순택 배우님의 깊은 애도와 함께 부디 행복한 곳에서 영면하시어 본인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B플러스의 비극” 이라고 하셨으나, 그 못다 이룬 “A플러스의 희극”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더불어 (사)한국연기예술학회는 고인께서 평소 본 학회를 통해 ‘연기학’의 탐구와 정착을 위해 애써주신 바가 너무나도 지대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한국연기예술학회의 명예의 전당”에 추대하고, “평생공로상”을 드리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작고하신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수많은 연극과 영화 관련한 소속회원 및 기타 종사자분들의 깊은 애도와 명복을 위해 추도문을 남깁니다.

■ 별첨- 추도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사)한국연기예술학회 사무국장 홍세희
(☎ 010-5521-0763, forestsehee@gmail.com)에게 연락바랍니다.

추도문(追悼文)

우리 시대 명배우이시며 우리 학회의 회원이신 오순택 원로배우님이 지난 4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작고하셨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별세하시어 이 크나큰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과 함께 가족분들에게 가까이서 위로가 되어드리지 못함에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고인께서 여전히 저희들 곁에서 생생히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고인께서는 종종 우리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조용히 나타나시어 연기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주시고, 고견을 나누어주시고 많은 후배 및 동료들에게 영감이 되어주신 점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하면 너무나도 벅차고 그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논리정박하게 본질을 꿰뚫어 보여주심에 ‘연기학’을 향한 진정성과 열정, 진실 그리고 실천적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인께서는 진심으로 우리 시대 명배우이십니다. 명인이시고 장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학회가 고인을 알고 있고 고인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과 기억이 남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좌표를 잃고 연기학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데 고인은 분명 우리의 방향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고인의 예술 행적 그리고 고인께서 남겨주신 여러 연기학에 관한 유산들은 분명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정립해나가는 등대가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순택 배우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꼭 함께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편한 세상에서 영면하시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십시오!

천국에서도 천상배우로 살아주시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2018. 4. 6. (사)한국연기예술학회